

# 해결사의 '식은 방망이' 7월엔 타오른다



## KIA 4번 타자 최형우의 인내 상대 집중 견제에 페이스 '뚝' 6월 홈런 1개 뿐...장타 실종 "때를 기다리며 이겨내겠다"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인내와 자신감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KIA 1위 원동력을 꿈꾸면서 빠지지 않는 이름 '4번 타자' 최형우다. 결정적인 순간 호쾌한 스윙으로 주자들을 쓸어 담으면서 KIA의 '신해결사'가 됐다. 하지만 최근 최형우는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상대 배터리가 어렵게 승부를 펼쳐가는 데다 타격 컨디션까지 좋지 않으면서 최형우의 폭발력이 떨어졌다. 지난주 6경기에서 최형우는 7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상대의 견제 속에 볼넷도 똑같이 7개를 더했다. 3·4월 26경기에서 나온 그는 33개의 안타 중 14개를 2루타로 장식하며 0.367의 타율을 찍었다. 3루타 2개와 5개의 홈런을 더해 21타점. 최형우는 5월에도 26경기에 출전해 0.330의 타율을 남겼다. 타율은 떨어졌지만 대

신 9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19타점을 올렸다. 19일 현재 6월 14경기의 타율은 51타수 16안타로 0.314. 2루타와 홈런은 각각 1개에 그치면서 9타점에 머물고 있다. 최형우는 "아무래도 견제가 계속되면 타격 페이스에 영향이 있다. 여기에 내가 타격감이 안 좋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을 많이 지켜보게 된다. 원래 스리볼 등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타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고, 팀 상황이 공격 때 기다리는 부분도 있어서 공을 많이 보고 있는 편이다"고 말했다. 타석에서의 견제뿐만 아니라 상대는 극단적인 '최형우 시프트'로 KIA의 4번 타자 무기에 고심하고 있다. 우측으로 깊숙하게 날린 타구가 2루수 땅볼로 둔갑하는 장면 등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형우는 인내와 자신감으로 뜨거운 여름을 기약하고 있다. 최형우는 "내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준비 잘하고 내가 승부를 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상대가 견제를 하더라도 내가 감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안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내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프트에 대해서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형우는 "막상 경기할 때는 시프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프트에 신경 안 쓰고 내 페이스대로 경기를 하려 한다. 그리고 역으로 시프트 때문에 내가 안타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 그런 안타가 나오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고 좋다"고 말했다. 때를 기다리겠다는 최형우의 '여유'에는 뒤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기특한 후배 안치홍이 있다. 4번 타자 최형우를 피하려는 상대 때문에 부당 많아진 5번 타자 안치홍이다. 최형우는 "치홍이에게 기회가 많이 가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다. 잘 준비하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 김기태 감독 "고효준, 참 재미있는 친구야"

#### ▲설레발 안 치려고요

야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최형우지만 팬들의 선택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4번 타자'다. 최형우는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 결과 2주 연속 최다 득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형우는 마지막에 기뻐하고 싶으면서 답답하다. 최형우는 "지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

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며 "요즘 (야구를 못하니까) 내 기사가 나오지 않더라"며 수줍게 웃었다. **▲참 재미있는 친구야**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하는 고효준이다. 김 감독은 20일 두산전에서 앞서 취재진

로부터 "고효준을 선발이 아닌 중간 자원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볼펜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며 고효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김 감독은 "참 재미있는 친구야. 다양한 폼으로 이렇게 저렇게 던진다. 깔끔하게 던지기도 하는데, 저번에는 멀리 던지더라"면서

제구 난조로 백네트 위로 멀리 공을 던지던 장면을 이야기했다. **▲의식이 되더라** 고효준은 한 주를 보냈던 '사이드업' 박진태다. 대졸 루키 박진태는 지난 주 롯데 원정에서 프로 선발 데뷔전을 치

른 등 선발로 두 경기에 등판했다. 임기영이 폐렴으로 빠지면서 기회를 얻은 그는 첫 등판에서 3.2이닝 4실점을 기록했지만, 씩씩하게 승부를 하면서 지난 18일 LG전에서 다시 한번 선발 기회를 잡았다. 이번에는 5회를 넘어 6회까지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불펜진의 난조로 기대했던 프로 데뷔승은 기록하지 못했다. "볼넷을 많이 준 게 가장 아쉽다"던 박진태는 "처음 선발일 때는 길게 던질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격적으로 했다. 하

지만 이번에는 길게 가자는 생각을 했다. 또 승리투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의식이 됐다"고 말했다. 김기태 감독도 "잘 던져줬다. 승리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시 선발 역할을 잘 해줬지만 박진태의 다음 등판 모습은 아직 미화정이다. 임기영이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들어간 데다 좌완 임기준이 퓨처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발진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지현



이정은

## 3연승 한다 vs 3번 울지 않는다

### 김지현-이정은 내일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재격돌

지난 18일 한국여자오픈 시상식 준비가 한창이던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 한 구석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 이정은(21)은 남몰래 눈물을 쏟았다. 이정은은 7일 전인 지난 11일 S-오일 챔피언십이 끝난 뒤에도 평평 울었다. 이정은은 눈물을 쏟을 때 시상대에서 활짝 웃으며 우승 트로피를 받아온 선수 두 번 모두 김지현(26)이었다. 김지현은 S-오일 챔피언십에서는 5차 연장 끝에 이정은을 따돌렸고 한국여자오픈 때는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린 이정은에 3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은 2주 연속 우승으로 다승 1위(3승)와 상금랭킹 1위(5억8천15만원)를 꿰차며 '대세'로 떠올랐다.

2주 연속 우승 경쟁을 펼친 김지현과 이정은이 또 한 번 격돌한다. 둘은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 나란히 출전한다. 여유가 넘치는 김지현은 내친김에 3연승을 노린다. 3주 연속 우승은 2008년 서희경이 하이원컵, KB 스타투어 3차전, 반하이오픈에서 차례로 정상에 오른 뒤 KLPGA투어에서는 아무도 이루지 못했다. 2009년에 유소연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한 적은 있지만 대회가 드문드문 열려 두 달이나 걸렸다. 3연승은 맞지만 3주 연속 우승은 아니었다. 김지현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마

저 석권하면 값어치는 서희경의 3연승을 뛰어넘는다. 서희경은 당시 3개 대회가 모두 3라운드짜리였다. 김지현이 우승한 한국여자오픈과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은 4라운드 대회다. 한국여자오픈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두 번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승부 근성을 내비친 이정은은 시즌 두 번째 우승으로 김지현을 따라잡겠다는 각오다. 우승은 한차례뿐이지만 이정은은 투어 최강자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 대상 포인트와 선수 기량의 바로미터인 평균타수에서도 1위는 이정은이다. 올해 11개 대회에서 8차례 톱10에 입상해 이 부문에서도 이정은은 맨 뒷자리에 올라있다. "승부에 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수를 한 게 분해서 울었다"는 이정은의 매서운 출사표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 KGT-KLPGA

### 한 번에 관람하자

#### 내달 13일 경남 사천타니

최진호의 파워샷 감상하다 김지현의 우아한 아이언샷 관람하고... 다음 달에 골프팬들은 한국 남녀 프로 골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한 자리에서 관전하는 드문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는 카이도 시리즈 제5차전을 오는 7월13일부터 나흘 동안 경남 사천타니 골프장에서 치르기로 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7월14일부터 사흘 동안 카이도·MBC 플러스 여자오픈을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남녀 프로 골프 대회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셈이다. 다만 남자 대회는 4라운드, 여자 대회는 3라운드 경기라서 7월13일은 남자 대회만 열린다. 또 36홀 코스를 나눠 남녀 대회를 각각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코스는 아니다. 하지만 클럽 하우스를 함께 쓰고 두 코스가 붙어 있어 갤러리는 남녀 대회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남녀 프로 골프 대회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건 처음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남녀 프로 골프 대회가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열린 게 세 번이다. 1978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KLPGA 챔피언십)은 한국프로골프선수권대회(KPGA 선수권) 여자부 경기로 열렸다. /연합뉴스



## 류현진, 메츠 잡고 4승 간다

### 23일 홈서 선발 등판

원소 투수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23일 오전 11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4승에 도전한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빌 사이킨 기자는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생겼으면서 류현진이 23일 메츠전에 등판하고, 알렉스 우드가 24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 나선다고 20일 트위터에서 전했다. 류현진은 애초 24일 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였으나 등판이 하루 앞당겨졌다. 지난 18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30일 만에 시즌 3승(6패)째를 올린 류현진은 나흘을 쉬고 다섯 만에 선발로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활 기미를 보이는 류현진이 좀 더 편안한 상태를 만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단이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류현진은 올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콜로라도와의 3경기에 등판해 모두 패했다. 홈런 4방을 허용했고, 피안타율은 0.323에 달했다. 놀린 아레나도라는 '전적'이 도사린 콜로라도와 달리 5할을 밀도는 성적으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공동 2위에 자리한 메츠는 비교적 만만한 상대다. 류현진은 메츠를 상대로 통산 3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80으로 쾌투했다. 다저스가 마에다 겐타를 불펜으로 돌리고 5인 선발 로테이션으로 복귀함에 따라 류현진은 선발 경쟁에서 살아 남았다. 류현진이 선발을 수성하려면 투구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최소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펼쳐야 벤치의 신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